



입석표라도...

설 연휴 호남권 열차승차권 예매가 실시된 16일 오후 광주역에서 입석표라도 구하기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위험한 화목보일러 특하면 사고

순천서 모녀 가스 중독 사망

기름값 아끼려 선포... 3년새 화재 66건이나

한파와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에 취약해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화목 보일러 보급이 늘어나는 데도, 소방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안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10시20분께 순천시 덕월동 한 가정집 주택 별채 황토방에서 이모(여·44)씨와 초등학생 딸 김모(10)양이 숨져 있는 것을 우모(여·50)씨가 발견, 신고했다.

경찰은 창문이 굳게 닫힌 데다, 이씨 모녀의 몸에서 선히색 반점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화목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화목보일러는 폐건물에서 나온 폐목재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나무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화목 보일러 연료로 많이 쓰이는 참나무(1t트럭 1대 분량)의 경우 통상 48만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이 양

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2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보일러 판매업체 관계자는 “방 3개인 일반 가정집의 경우 기름보일러 유지비로 연간 240만원이 든다면, 화목 보일러의 경우 40만원이면 된다”면서 “지난 2011년부터 판매가 급증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500대 넘게 팔렸다”고 말했다.

화목 보일러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6287건) 중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227건(3.7%). 특히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된 경우는 66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화목보일러는 과열이나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게 소방본부 설명이다.

지난 5일 나주시 봉황면 한 주택

에서는 나무 뿔감으로 사료를 끓이다 불티가 옮겨붙어 불이 났다가 하면, 4일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졌다.

또 화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폐목재, 특히 페인트가 묻은 나무 연료의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절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이나 소규모 식당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의 경우 소방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다”면서 “사용자들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센인의 안타까운 삶

소록도병원서 투신 사망

국립소록도병원에서 50여년만에 한센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2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병원 1층 화단에서 황모(6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했다. 황씨는 의료진들에 의해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황씨가 화단에서 발견되기 직전에 자원봉사자를 만났으며 신변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975년 한센병으로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황씨는 완치된 후 한센인 마을에서 거주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께 다시 소록도병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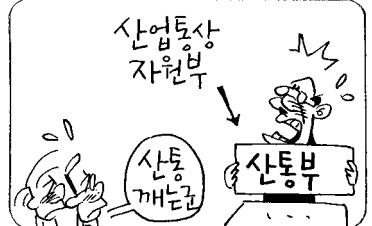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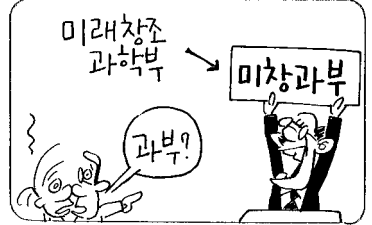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황씨는 건강이 악화돼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생활해 왔다. 또 오랜 기간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신변을 비판해 병원 관계자에게 “천국에 가기 보다 얼른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록도병원에는 1인실이 없기 때문에 황씨가 머물던 병실에는 다른 환자들이 있었으나 중증환자라 의사표현이나 인지는 힘이 부족해 황씨의 투신을 말리지 못했을 것으로 병원측은 보고 있다.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은 “고통받고 있는 한센인들을 위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갑자기 생겨 침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나원침 (8734)



오늘 한의사 집단 휴업

전국 한의사들이 17일 하루 집단 휴업하고 정부의 한방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한 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한의사 약 1만명이 휴업하고 서울역에서 열리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비대위는 비상진료 담당자 일부를 제외한 한의사 70~80%가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동생 명의로 몰래 카드 만들어 '팩'



○~여동생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옷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산 30대 주부가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여·37)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친동생 몰래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30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옷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동생 카드를 긁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지난해 7월께 카드를 만든 뒤 옷과 생필품을 구입했는데, 동생의 신고로 달미.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거짓말탐지기 조사하라”

檢, 경찰에 보강 지시

검찰이 '현직 의사 친동생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 2부(전장진 부장검사)는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목포 모 병원 의사 A(47)씨에 대한 수사를 보강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정황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피해자 어머니의 직접 진술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보강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검찰 보강 수사 지시가 내려진 만큼 재차 설득하는 한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여동생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행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운용 지침은 정신과 등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내용을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친오빠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십년간 성폭행당했다'며 목포경찰청에 고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장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검, 뇌물 김광준 검사 해임 청구

대검찰청 검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재심사건을 무죄구형 논란을 빚은 임모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본부는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비리 혐의 외에 김 검사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200만원, 모 유입대 표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해당 비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편입생 모집

【 학 부 】 편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 집 계 열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계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 문 사 회	신 학 과	9	-	-	9
	사회복지상담학과	4	2	-	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	2
사 법	유아교육과	6	2	2	10
예 능	음 악 학 과	12	1	-	13
합 계		32	6	2	4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3. 1. 7(월) ~ 18(금)
- 전 형 일 : 2013. 1. 24(목) 오후 1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학교 설립 59주년 (1954~2013)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062)605-1115, 1021, 1111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진료문의 062)227-7575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일·공휴일은 오전진료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에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입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대부업체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리모델링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6,75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3,20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4,5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